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호 [루게 제23327호] 주체100(2011)년 1월 10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석탄 증산 투쟁의 불길이 라오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올해공동사업에는 석탄이 땅과 나와의 비료와 섬유도 쏠아지고 전기와 경제도 나온다고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2. 8 직 동청년 탄광에서 - 김진명 찍음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인민생활대고조으로 힘있게 조직동원

함경남도당 위원회에서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고조를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함경남도에는 단천지구의 팡산들과 홍남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팡산, 공장, 기업소들이 많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전체 각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전투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여러차례나 함경남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생한 기술개선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당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함경남도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는데서 앞장에 설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함해남도의 기본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며 함해남도 농민증산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대고조에 힘있게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2. 8비료농민합기업소와 홍남비료농민합기업소, 홍남기계농민합기업소, 홍남제약공장과 김덕평민합기업소, 대동농민영양광산, 홍양광산, 단천마그네사공장, 단천제련소를 비롯한 홍남지구와 단천지구의 팡산,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는 단천지구의 팡산, 공장,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남지구관할합기업소와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의 3개 당조직을 비롯한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단천지구와 홍남지구의 팡산, 공장, 기업소들과 경영공공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남지구관할합기업소와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의 3개 당조직을 비롯한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단천지구와 홍남지구의 팡산, 공장, 기업소들과 경영공공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높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공생상조장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올해의 대고조으로 대대적으로 뛰어들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해남도의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결실히 필요 한 화차들을 더 많이 제작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동을높은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단천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특혜윤성 단천항건설동맹대에서 - 본사기자 찍음

특파기자 신천일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 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온 구역에 차넘치는 농사중시기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오늘도 총공격전에서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의 첫 전투가 시작되였다. 도시거리를 뚝뚝 뚝 실은 거름운반자동차행렬이 항구구역의 거리와 농장별을 누비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올해공동사설의 요구대로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결사의 각오를 안고 농촌지전투에 떨쳐나선 항구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대단하다.

수십대의 거름운반자동차에 붙은 기발을 쫓고 힘차게 내달리는 자동차행렬의 선두에는 구역당위원장일군을 비롯한 구역당위원장일군들이 서있다.

힘들고 내달리는 방송선전차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사설과업관철에 부

는 격동적인 방송선전이 진행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과의 우월성을 겨루는 혁명가요의 노래소리가 농장별을 들끓고있다.

인민생활고조의 불길은 세차게 지쳐올려 강성대국건설에 사격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에 우리 당일군들이 송풍기가 되고 돌격전의 기수가 되어 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

구역당위원장일군들은 이런 드물었던 신념과 비상한 열의를 안고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이 사회주의농촌을 물심장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지전투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적사업을 확신으로 벌어나가고있다.

전투에 진입하기 전에 구역당위원장일군들은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에 내보내어 올해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

하면서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돌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며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대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한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구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 가두인민반들에서 거름생산과 운반작업이 힘있게 벌어져있다.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은 모진 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헌지도도를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며 질풍은 거름을 각종 운반기계, 자동차에 싣고

지정된 장소로 모여들었다. 구역기동에출신동맹원들이 새해농사차비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선전, 경제선전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들었다.

한편 신총협동농장에 내려간 구역당위원장일군들은 이신작적의 실천적모범으로 농장원들을 공동사설과업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리하여 구역에서는 수천t의 질풍은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해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구역당위원회의 면밀한 작전과 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새해 첫 전투부터 구역안의 모든 경영부문 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구역당위원회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정치적분위기에 맞게 조직적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목회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는 농장원들과 함께 질풍을 지고 거름운반작업도 하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피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포전에 실어내는 유기질비료가 류타리 집집질질하며 질이 좋은것이다. 어떻게 되어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심을 내리자고 하였다. 여러가지 창작적인 의견이 오가는 속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리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려면 올해에도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에서

이렇게 말머리를 댄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더 늘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피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포전에 실어내는 유기질비료가 류타리 집집질질하며 질이 좋은것이다. 어떻게 되어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심을 내리자고 하였다. 여러가지 창작적인 의견이 오가는 속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리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려면 올해에도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펼쳐나선 온산군 대양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생산은 늘이지만 농사의 주인인 동민들이 제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농장일군들인 리근수, 리금환동무들의 생각은 깊었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한 공동사설의 농업부문 과업을 새겨머 생각을 끌리던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뛰니뛰니해도 거름생산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로 생각을 합쳐왔던것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제 5작업반으로 향하였다.

나지막한 등성이길을 걸으며 작업반포전을 바라보니 눈발에 쌓인 거것거것한 거름더미들에서 흰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작업반에 이르니 라정현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거름을 실어내고있었다.

축산기지를 잘 꾸린 이 작업반에는 한해동안 묵인 거름더미

앞선 단위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온산군 대양농장에서

들이 퇴적장에 가득 쌓여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는 농장일군들의 마음은 호호하였다.

하지만 작업반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열두바다파기를 비롯하여 더 많은 거름전환을 확보하기 위해 새해의 첫 전투를 분배있게 벌리고있었다.

농장일군들은 이 작업반에서 보여주기사업에 조직하기로 하였다.

《올해에 우리 손으로 알찬 열매를 가꾸어 거두어들이자면 뛰니뛰니해도 이틀처럼 거름생산에 힘을 들여야 합니다.》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곳 작업반의 경험을 초급일군들에게 알려주었다. 앞선 단위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은 불과 몇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효는 컸다. 다음날부터 농장의 어느 작업반에서나 거름생산이 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농장에서는 거름더미가 높아 갈수록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넣었다. 제 1작업반원들의 열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해공동사설을 심장에 새긴 작업반장 박성현동무는 조직사업을 간지켜 하여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더 생산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질풍은 부식토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잘 치게 벌려나갔다.

분조장 박원호동무를 비롯한 분조원들은 가정에서 생산한 질풍은 거름을 수십 t이나 포

전에 실어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장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높여주면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다그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속도에 눈발마다 거름더미들이 높이 쌓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서승호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에서

이렇게 말머리를 댄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더 늘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피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포전에 실어내는 유기질비료가 류타리 집집질질하며 질이 좋은것이다. 어떻게 되어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심을 내리자고 하였다. 여러가지 창작적인 의견이 오가는 속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리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려면 올해에도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댄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더 늘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피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포전에 실어내는 유기질비료가 류타리 집집질질하며 질이 좋은것이다. 어떻게 되어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심을 내리자고 하였다. 여러가지 창작적인 의견이 오가는 속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리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려면 올해에도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리마제장면합기업소 3대 혁명소원들에 대한 새해 첫 취재길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새해공동사설과 김철의 편지에 접한 기업소의 현장은 어디나 불도가나였다.

생산현장을 돌아보면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알고보니 이곳 3대 혁명소원들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였다.

《한 로동자가 기대를 세워 놓고 수리하는 시간은 불과 1분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설비편지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1분이

라도 생산을 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소, 최첨단시대인 오늘에는 1분도 큰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헛되이 흘러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학기술의 최후병마라고 멋있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순간 가슴을 툭 치며 외창는 것이었다.

강들처럼 흘러가는 하얀

시간중의 1분을 놓고 그렇듯 안타까와하는 소소원들.

그 순간 나의 뇌리에선 언제인가 현대적인 기계가 1분동안에 수십개의 최첨단제품을 생산한다는 자료를 본 생각이 피뚫 떠올랐다.

그렇다. 강성대국건설의 결승주요에 들어선 오늘의 1분 1초는 얼마나 귀중한가.

1분 1초!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최첨단들 사이의 최후병마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창조와 혁신의 자욱자욱이 아니겠는가.

황 금 철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로 이끌어가고있는 당초급일군들은 청단군 청단협동농장 제 13작업반 부락당비서 전순철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큰 효소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청단군이다. 제대배낭을 고향에 풀어놓은 그가 부락당비서로 일하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내 한생이 땅을 걸구는 밭 거름이 되리라.)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강렬해지는 전순철동무의 결심이다. 그는 이런 소중한 마음을 안고 고향마을을 가꾸어나가는 일에 온넋을 바쳐왔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청단군 청단협동농장 제 13작업반 부락당비서 전순철동무

이렇게 말머리를 댄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더 늘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피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포전에 실어내는 유기질비료가 류타리 집집질질하며 질이 좋은것이다. 어떻게 되어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심을 내리자고 하였다. 여러가지 창작적인 의견이 오가는 속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리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려면 올해에도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댄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더 늘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피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덕성군 수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포전에 실어내는 유기질비료가 류타리 집집질질하며 질이 좋은것이다. 어떻게 되어 질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가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심을 내리자고 하였다. 여러가지 창작적인 의견이 오가는 속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관리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려면 올해에도 새로운 유기질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내걸고 창성직물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창성명 어디서나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명에 지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 창성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생산을 빨리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올해공동사설을 눈뚫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여러가지 질풍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드는 열의에 넘쳐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로동자들에게 당의 지방공업혁명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심어주면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열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생산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자각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여러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빠른 시일에 끝낼 결의에 이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방모공정과 피복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되면 수요가 높은 제지모포와 이불솜, 피복제품들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크게용실생산의 염색공정이 기술개진되면 다양한 색깔의 뜨개 옷장품을 늘일수 있다.

비날론포포가 쏟아지는 오늘 양명생산을 많이 하는 창성군이 양명과 화학섬유를 섞어 만든 것까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지 못할 조건이 없다.

창성직물공장에서 질이 더 좋은 여러가지 뜨개옷과 이불솜, 피복제품을 팽팡 생산하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추켜들 창성직물공장을 여러 성, 중

양기관들과 도급기관, 중앙공업공장에서 직접 조달한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면한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피복작업반과 편직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선에 힘을 넣으면서 옷가구의 질을 높이고 뜨개질로 질풍은 여러가지 세타, 아동모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그에 맞게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자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로동자들이 생산을 팽팡 내밀수 있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높이 창성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대화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박상훈

1분 1초

당과류생산에서 혁신

속사탕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 로동자들도 맛좋은 사탕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 한마음안고 일손을 다그쳐 실적을 올렸다.

공장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해 사탕, 과일향양 사탕생산지 체이 각각 120%, 115% 초로 넘쳐수행된것을 비롯하여 넘쳐실적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부쩍 올라갔다.

올해의 시작을 잘 맨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주공정선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열의밑에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당과류생산에서 혁신

속사탕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 로동자들도 맛좋은 사탕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 한마음안고 일손을 다그쳐 실적을 올렸다.

공장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해 사탕, 과일향양 사탕생산지 체이 각각 120%, 115% 초로 넘쳐수행된것을 비롯하여 넘쳐실적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부쩍 올라갔다.

올해의 시작을 잘 맨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주공정선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열의밑에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당과류생산에서 혁신

속사탕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 로동자들도 맛좋은 사탕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 한마음안고 일손을 다그쳐 실적을 올렸다.

공장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해 사탕, 과일향양 사탕생산지 체이 각각 120%, 115% 초로 넘쳐수행된것을 비롯하여 넘쳐실적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부쩍 올라갔다.

올해의 시작을 잘 맨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주공정선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열의밑에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맛있고 영양가있는 식료기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회령식료기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세차게 끓여버리는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는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새해공동사업과 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여버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밤은 깊어갔으나 학장 리형길동무는 좀처럼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해전투결의목표가 놓여있었다. 결의목표는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설것을 요하는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전과사상에 비추어볼 때 과학연구목표에는 어떤지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았다.
깊은 사색에 잠겨 정사를 나서려던 대학일은 불이 새어나오는 어느 한 방으로 향하였다. 그는 들어서는것을 모르고 여러 글자들이 무슨 실험에 열중하고있었다. 송병익, 박철수, 김옥동무들이었다. 과학탐구와 교제집필의 명수들이던 그들은 실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 자국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애국의 열정을 발휘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분원의 분위기를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있었다. 분원의 과학자들은 애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기념하는 최상급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해 심심드높이 첫시작부터 총공격전열을 들어내고있었다.
만나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더 큰 연구성과를 낼 자신만만한 배설과 대고조시대의 하루하루를 새로

다시 세운 전투결의목표

함흥약학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이것은 그대로 강좌, 학부 결의목표에 반영되었으며 대 학적인 새해전투결의목표는 보다 높이 세워지게 되었다.
다시 세운 전투결의목표, 거기에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대국의 지 위에 당당히 올려세우려는 결의가 담겨있었다.
이것은 그대로 강좌, 학부 결의목표에 반영되었으며 대 학적인 새해전투결의목표는 보다 높이 세워지게 되었다.
다시 세운 전투결의목표, 거기에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대국의 지 위에 당당히 올려세우려는 결의가 담겨있었다.
이것은 그대로 강좌, 학부 결의목표에 반영되었으며 대 학적인 새해전투결의목표는 보다 높이 세워지게 되었다.
다시 세운 전투결의목표, 거기에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대국의 지 위에 당당히 올려세우려는 결의가 담겨있었다.

새 섬유개발에 힘을 넣어 화학섬유연구소에서

올해공동사업을 피뎌는 심 장으로 받아안은 국가과학원 화학섬유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 지할 열의에 넘쳐 과학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 조직에서는 과학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해나 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섬유생산을 철저히 주재화, 국산화하는데 중점을 둔 과학기술적문제 푸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이러한 열의에 힘입어 과학자들은 새로운 섬유생산 열의에 넘쳐 과학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 조직에서는 과학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해나 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섬유생산을 철저히 주재화, 국산화하는데 중점을 둔 과학기술적문제 푸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각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경애하는 장군님을 순결한 랑심과 의리로 받드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 리십이며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새해공동사업과 김철로동 계급의 전투적호소를 피뎌는 가슴마다에 반인간의 전국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 들은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오신 강행군반자취를 뜨겁게 더듬고있다.
자강도녀맹위원회에서는 최첨단기술개발에 힘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일군들과 녀맹원 들속에 깊이 체득시키는 한편 철결과 도로주변을 보수 하고 그곳에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번듯하게 꾸려 놓았다.
남포시 강서구역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일군들과 녀맹원 들속에 깊이 체득시키는 한편 철결과 도로주변을 보수 하고 그곳에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번듯하게 꾸려 놓았다.

자질향상을 방법론있게

벽동군인민병원에서 의료일 군들의 기술실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하고있다.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기술학습과 경험토론회를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중앙과 도급병원에서 의료일 군들을 많이 보내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게 하고있다.
또한 실력있는 의료일군들의 초빙강 의와 림상실현실기보여주기사 업을 잘 조직하는것과 함께 젊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 일군들 집단 달리기 진행

【평양 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9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가 있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건강한 몸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열을 다그쳐갈 열의안고 김일성광장에 모인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두개 조로 나뉘어 승리거리와 만수대거리를 따라 달렸다.
경공업성, 석탄공업성,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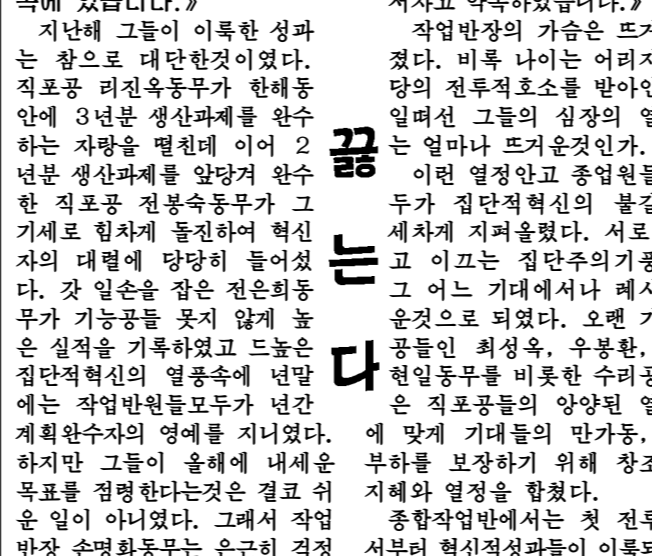


후더운 성 한껏 느끼며

새해 정초 어느날 우리는 풍산려관을 찾았다.
저녁노을이 개마고원의 눈덮인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해질물녘, 불장식을 한 《풍산려관》이라는 현관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봉사일군들은 인민의 총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봉사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이건만 려관밖 들은 후끈후끈하였다. 인사장은 한 너이인 방들을 돌아보면서 손님들에게 방안온도가 어떤가고 다정히 물는것이였다.
《훈훈해서 참 좋습니다.》
《풍산려관은 정말 들런바 대로 따뜻한 우리 집이군요.》
《따뜻한 우리 집...》
(따뜻한 우리는 그 의미를 순간에 다 알수 없었다.

사리원방직공장 직포종합작업반 직포공들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시 심장 으로 화답하여나선 사리원방직 공장 직포종합작업반 직포공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업현장은 부글부글 끓여버린 기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살인 금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할 때 있고 잘 할 때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 바쳐 싸우는 창조와 투쟁 속에 있습니다.》
지나해 그들이 이룩한 성과는 함으로 대단한것이였다. 직포공 리진숙동무가 한해동안에 3년분 생산과제를 완수 하는 자랑을 떨친데 이어 2 년분 생산과제를 앞당겨 완수 한 직포공 진복숙동무가 그 기세로 힘차게 돌진하여 혁신자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갓 일손을 잡은 권은희동 무가 기능공들 못지 않게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드높은 집단적혁신의 열풍속에 언덕 같은 작업반원들모두가 년간 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올해에 내세운 목표를 점령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작업반장 손명화동무는 은근히 걱정이 없지 않았다.



찬바람 기승부리는 정초부터

세월이 흘러 후지령에 올라 산나물을 채취하고 도로 리를 탄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고 손뼉들이 《따뜻한 우리 집》이라고 하던 말이 다시금 생각 되었다.
하루해가 저물어 우리도 따뜻한 려관방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새날이 밝자 주방에서는 가락맞는 칼도마소리, 휘둘러오는 긴 칼을 뽑는 닭을음소리가 귀맛있게 들려왔다.
당의 인민정책이 은이 나 게 상공공급사업과 공양봉사 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공동사업의 호소를 마음속 에 새겨가며 인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풍산려관 봉사자들의 후더운 숨결이 느껴지는 즐거 운 아침이었다.
우리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았다.
풍산려관에서 받아안은 진정한 하도 후대워...
《봉사처에서부터 청년분조가

보담의 계주봉을 마음에 안고

만경대구역인민병원 의사 신성일동무

만수대 언덕에 모신 애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세하의 첫인사를 삼가 올리며 올레로 돌발걸음 못매는 사람들 이 있었다. 그들은 만경대구역인민병원 의사 신성일동무와 그의 가족이었다.
머 좋은 배임을 향해 신심높 이 가라고 앞날을 뜨겁게 축복 해주시는 애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를수록 신성일동무의 가슴은 찢어질듯 하였다.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대대로 받아온 사랑만큼도 끝없는 애의와 정을 품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애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를수록 신성일동무의 가슴은 찢어질듯 하였다.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대대로 받아온 사랑만큼도 끝없는 애의와 정을 품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애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를수록 신성일동무의 가슴은 찢어질듯 하였다.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대대로 받아온 사랑만큼도 끝없는 애의와 정을 품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애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를수록 신성일동무의 가슴은 찢어질듯 하였다.

뜨거운 경쟁 바람

염주군 통북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기발을 들고 앞장서 달려라!
그들이 거름실어내기에 떨쳐 나서던 그때 작업반장 하영진 동무를 비롯한 제5작업반 농 장원들은 봄기가 새겨져 피가 다르고 거름 얼지순간을 내보이는 농장일군에게 안 승복동무는 어깨가 페이도록 기를 담은 질풍을 추어올리 며 말했다.
《우리의 힘과 열정을 두었다 애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나가신 우리 통 북협동농장을 위하여 힘쓰고 달려나오십시오.》
모두가 이해의 첫 전투에서 부터 영예로운 우승자가 되자 는것, 바로 이것이 영광의 땅 을 가꾸어가는 통북사람들의 하나같은 생각이였다.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